

아이유 “준비한 걸 포기할 줄 알아야죠”

이병헌 감독 새 영화 ‘드림’ 다큐 PD역
 “이병헌식 빠른 대사 적응에 애먹어”
 “준비한 거 포기할 줄 알아야 호흡 맞아”
 “그간 어두운 역 많아... 밝은 인물 원해”



인지는 몰라도 영화 쪽으로 오면 더 다양한 배우들이 어우러지는 작품이 끌리더라고요. 캐릭터가 하나 하나 살아있고 함께 어우러지는 대본을 읽을 때 희열이 컸어요. ‘드림’이나 ‘브로커’ 두 작품 모두 그래서 골랐던 것 같아요.”

‘드림’은 ‘극한직업’으로 16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이병헌 감독의 새 영화다. 이 감독 영화스러운 코미디가 있고 특유의 재기 넘치는 대사로 가득차 있다. 아이유는 처음에는 이 감독 영화 현장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했다. “리딩 때보다 대사를 더 빠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말이 빠르지 않은 편이고 목소리도 낮다보니 대사 속도를 높이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이 감독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스태프·배우들과 반복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워낙 호흡이 잘 맞다보니 예정된 촬영 시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끝나는 일이 흔하다. 아이유는 모두가 호흡이 잘 맞는데, 나 혼자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더 열심히 연기 준비를 해갔다고 했다.

“감독님이 요구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놓고 준비해왔어요. 하지만 매번 제 생각을 벗어나더라고요.(웃음)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중압감이 심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을 벗어나는 그 상황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촬영 중반부터는 그래도 한 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막내라고 너무나 큰 배려를 해주신 선배님들 덕분이 것 같아요.”

‘드림’에서 아이유가 연기한 소민은 그가 지금까지 연기한 배역 중 가장 가벼운 인물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나 영화 ‘브로커’에서 보듯 아이유는 대체로 사연 많은 캐릭터를 맡아왔다. 그가 소민을 연기하기로 결심한 데는 소민이 그간 연기한 인물 중 특별한 전사(前史)가 없는 인물이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줬다. “제가 맡은 역할이 저한테 영향을 주더라고요. 연기할 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랬어요. ‘호빗 델루나’만 해도 어두운 작품은 아니지만 사연이 많잖아요. 밝은 인물을 연기하는 데 갈증이 있었어요. 소민을 연기해보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밝은 역할 하면 저 역시도 밝고 심플해져요.”

2008년 가수로 데뷔해서 많은 곡을 성공시켰고, 출연한 드라마 역시 대체로 호평받았다. 다만 영화 쪽으로 넘어오면 흥행 면에서 ‘대박’이라고 할 만한 성과는 아직 없었다. 아직 작품수가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상업적 성공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드림’은 다르다. 1600만 영화를 만든 흥행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 쉽고 따뜻한 메시지로 더 많은 관객을 공략하는 게 목표인 영화다. 그는 “필 하든 잘 되면 좋은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제 두 번째 주연작입니다. 하지만 주연 배우로 참여하는 거니까 최대한 잘 되길 바라죠. 이제 ‘드림’을 최대한 열심히 알려보려고요. 홍보를 게을리 하면 안 되죠.”

공개 순으로 보자면 배우 아이유(30·이지은)가 처음 주연을 맡은 장편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2022)다. 다만 먼저 선택했고 먼저 촬영한 작품은 오는 26일 개봉하는 이병헌 감독의 새 영화 ‘드림’이다. 그래서 ‘드림’이 아이유의 첫 번째 영화 주연작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아이유는 2011년 드라마 ‘드림 하이’로 연기를 시작한 13년차 배우. 하지만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매번 자신을 ‘조심자’로 낮춰 부른다. ‘드림’ 공개를 앞두고 만난 그는 정말 조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간 듯 첫 영화 현장에서 연기 호흡에 관해 배웠다고 했다.

“제가 준비한 걸 얼마나 빠르게 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원하는 연기가 있잖아요. 게다가 저 혼자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배우들과 함께하려면 내 대사만 하고, 제가 준비한 것만 할 순

없었어요. 준비한 게 있더라도 그걸 상황에 맞춰서 버릴 수 있을 때 호흡이 맞아 간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죠.”

영화 ‘드림’에서 아이유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 ‘소민’을 연기했다. 소민은 헝가리에서 열리는 홀리스 월드컵에 출전하는 노숙자 출신 남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극적으로 담아 시청률 대박을 노린다. 나아가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 그라운드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자숙 중인 축구선수 ‘홍대’(박서준)를 감독으로 영입한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소민과 홍대 그리고 노숙자 출신 축구선수들이 동고동락하는 과정을 그린다.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만큼 많은 배우가 매번 함께해야 하는 현장이었다. 물론 아이유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드라마에선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명확하고, 두 인물이 극을 이끌죠. 저는 주로 여자 주인공 역을 맡아왔고요. 그래서

이선균·주지훈 ‘사일런스’ 칸 합류

‘사일런스’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 추가



올해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된 한국영화가 한 편 더 늘었다. 배우 이선균과 주지훈이 주연한 ‘탈출: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사일런스’)가 칸에 가는 5번째 한국영화가 됐다.

칸영화제 사무국은 24일(현지 시각) 제76회 행사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 초청작을 추

가 발표했다. ‘사일런스’는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사일런스’는 안우락 카시업 감독의 ‘케네디’(Kennedy), 저스트 필리포 감독의 ‘에시드’(Acide) 등과 함께 해당 부문에서 칸 관객을 만난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장르물을 다루는 섹션이다. 앞서 한국영화 중엔 배우 이정재가 연출한 ‘헌트’,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등이 초청된 적이 있다.

‘사일런스’는 짙은 안개 속에서 다리 위에 고립된 이들의 사투를 그린 재난 스릴러물이다. 이선균·주지훈·김희원·문성근·예수정·김태우·박희본 등이 출연했으며, ‘굿바이 싱글’(2016) 등을 만든 김태곤 감독이 연출했다.

‘사일런스’가 합류하면서 올해 칸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는 모두 5편이 됐다. 배우 송강호가 주연을 맡고 김지운 감독이 연출한 ‘거미집’은 비경쟁 부문에, 김창훈 감독이 만들고 홍사빈과 송중기가 출연한 ‘화란’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다. 이선균·정유미 주연하고 유재선 감독이 연출한 ‘잠’은 비평가 주간, 홍상수 감독의 ‘우리의 하루’ 감독 주간에 진출했다. 이선균은 출연작 두 편이 동시에 칸에 가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다만 올해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영화는 없다.

올해 칸영화제는 다음 달 16일부터 프랑스 칸에서 열흘 간 열린다.



피프티 피프티, 美 빌보드 상승세 계속

미국·영국 싱글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큐피드’(Cupid)가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상승세다.

24일(현지시간) 빌보드 등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가 29일 자 빌보드 내 ‘글로벌 200’에서 9위를 차지했다.

특히 데뷔 158일만에 해당 차트 톱 10에 진입하는 기록을 썼다. 이번 주 ‘글로벌 200’ 차트 톱 10에 진입한 한국 가수는 피프티 피프티가 유일하다.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점수 등을 포함하지 않고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글로벌 200’은 전 세계 실질적인 음

원차트 순위로 통한다. 글로벌 관련 차트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200’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Excl US)로 나뉜다.

지난주 ‘글로벌’(Excl US)에 9위로 진입했던 ‘큐피드’는 이번 주에 10위에 자리하며 2주 연속 톱10에 진입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HOT) 100’에서도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곡은 지난 주 ‘핫100’에서 60위를 차지하며 4주 연속 역주행하며 해당 차트에 머물렀다.

또 영국 오�픈셜 싱글 차트 톱 100 최근 차트에서도 26위에 올라 4주 연속 진입했다.

세븐틴, 미니 10집 첫날 약 400만장 판매...K팝 역대 초동 1위

첫날 음반 판매량 300만장도 처음 넘겨

대세 그룹 ‘세븐틴’(SVT)이 미니 10집 ‘FML’로 K팝 역대 초동(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 기록을 다시 썼다.

25일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와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FML’은 같은 날 기준 399만장이 팔렸다. 일반 버전 200만장, 캐럿 버전 149만 6500장, 위버스 버전 35만7000장, 키트 버전 14만4500장이 각각 판매됐다.

세븐틴의 전작인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의 초동 판매량(발매 후 일주일간 음반 판매량)인 206만7769장을 단 하루 만에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해당 차트에서 기준에 국내 음반 초동 판매량 역대 1위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세븐’(MAP OF THE SOUL : 7)(337만8633장) 판매량도 크게 넘겼다. ‘맵 오브 더 솔 : 세븐’의 첫날 판매량은 265만3000장이었다.

또 세븐틴은 ‘FML’로 발매 첫날 음반 판매

량 300만 장을 넘긴 유일한 아티스트가 됐다. 이 음반의 최종 초동 기록은 400만장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음반의 선주문량은 464만장이었다.

세븐틴은 음원차트에서도 강세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톱100에서 더블 타이틀곡 ‘손오공’이 3위를 찍는 등 한 때 이번 앨범 수록곡이 모두 멜론 톱100 톱10에 진입하기도 했다. 해외차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싱가포르, 필리핀, 브라질, 인도 등 총 36개 국가/지역 1위를 찍었다.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 AWA에서도 1위에 올랐다.

세븐틴 멤버들은 이번 앨범에 대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담았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앞서 세븐틴은 지난해 정규 4집 리패키지 ‘셋터 17’으로 K-팝 역사상 최초로 리패키지 앨범 ‘초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다. 이 음반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음반차트 ‘빌보드 200’에서 자체 최고 기록인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세븐틴이 계속 기세를 올리고 있는 만큼 ‘FML’은 ‘빌보드 200’ 등 글로벌 차트에서 호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빌보드 200’ 자체 신기록이 기대된다.

우리가 바랐던 무대...‘댄스가수 유랑단’

tvN ‘댄스가수 유랑단’이 오는 5월 25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으로 첫 방송을 확정 지었다.

‘댄스가수 유랑단’(연출:김태호·강령미)은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 김완선, 엄정화, 이효리, 보아, 화사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담은 방송이다. 전국을 유랑하며 무대마다 다른 주제로 다섯 멤버들의 솔로 무대들이 펼쳐진다.

앞서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서는 공연장을 바라보고 있는 멤버들의 뒷모습이 담긴 반면, 최근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마침내 무대에 선 멤버들이 담겼다.

포스터 속 ‘우리가 바랐던 무대, 그 이상의 이야기’라는 문구 또한 눈에 띈다. 데뷔 연차 포함 129년에 달하는 이들의 특별한 공연에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댄스가수 유랑단’의 다음 공연지는 광주광역시다.

‘댄스가수 유랑단’의 광주 공연 예매는 27일 오후 8시 멜론 티켓을 통해 오픈된다.

